

경탄과 두려움의 사이 : 이세경의 머리카락 도자기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 관장)

2018.8.31

이세경의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아름답다. 작가의 작품을 접해본 여성이라면 평소 살림에 별 관심이 없고 그릇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나도 저런 그릇 하나 가져봤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른다. 그만큼 작가가 제작한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혹은 하나쯤 장식용으로 비치해두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섬세하고 기품있다. 그도 그럴



Hair on the Plate, 2005

것이 이세경이 제작한 작품은 통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들이나 혹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명가 생산의 도자기와 꼭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작가가 왜 이미 명품의 반열에 오른 도자기를 재제작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도예를 전공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직접 용기를 성형하는 대신 이미 초별구이된 용기를 구입하여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시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작가가 주로 시문하는 이미지는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문양이나 독일 마이센 자기의 문양들, 혹은 러시아 구성주의 시기의 문양과 같이 이미 고전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실제 박물관에 비치된 원본 도자기에 필적할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세밀하며 우아한 도자기를 제작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작품에 대한 이러한 경탄은 작가가 이미지를 용기에 새겨 넣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전된다. 이세경 작업의 세밀함과 정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작품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많은 머리카락들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아니 어쩌면 친절하게도 작가가 작업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미완성(non-finito)’의 개념을 도입한 작업 - 머리카락이 그대로 늘어진 - 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인식은 그것이 정말 머리카락일까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 눈앞에 실물을 놓고도 그것이 머리카락으로 제작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들 인식의 저변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이중적 판단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세경 작품에 대한 양가적 가치가 놓여있다. 통상적으로 찰랑이는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젊음, 건강함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가꾸어야 할 대상이었던 머리카락이 우리들의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불결함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음식 혹은 식기와 결합되는 순간 불결함은 극대화된다.

어린 시절, 긴 머리를 고수했던 작가는 요리 연구가였던 어머니로 인해 유달리 청결함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예민할 수 밖에 없었던 머리카락의 양가적 가치에 기초한 이세경의 작업은 그대로 작품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세경의 작업은 머리카락이 신체의 일부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갖는 대조적인 간극을 그대로 반영한다.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자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드러내는 섬세함과 우아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달하는 고전적 미는 누구나 열망해 마지 않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억압해왔던 요소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세경의 작업들은 또 다른 배제를 잉태하고 있다.



Hair on the Carpet, 2004

이런 면에서 이세경의 작품에 사용된 머리카락은 매혹과 공포 혹은 매혹과 불결함의 이중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브제시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아브제시용을 다루는 작품들과는 달리 작가는 배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하지 않는다. 섬세하면서도 우아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위장한 머리카락은 우리들을 경탄과 두려움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로 위치시킨 채, 우리가 스스로 배제하고 억압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